

뮤헤리스타신학
Mujerista Theology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
Ada María Isasi-Díaz

1988년 미국에서 출판된 “남미 여성: 교회 안에서의 예언자적 목소리”는 신학계가 남미 여성들의 종교관과 예배관 – 어떻게 우리 (남미 여성들)가 하나님과 신앙의 함축적 의미들을 이해하는가 – 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문으로써의 신학이 남미 여성들의 삶과 투쟁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이라 기대하며, 나는 이 책을 올란다 타랑고 (Yolanda Tarango)와 썼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와 교회에서 남미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억압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남미 여성들은 곧 “뮤헤리스타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투쟁에서 갖는 신앙의 역할에 대한 설명, 우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우리들의 세계관에 대한 구체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 우리 문화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뮤헤리스타¹ 신학은 해방을 목표로 하는 프락시스 (praxis, 실천적 방법론) - 반성하는 행동 (reflective action) 이다. 신학적인 사업으로서의 뮤헤리스타 신학은 해방의 비전에 기초하여, 남미 여성들의 주체적인 도덕 행위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해방의 비전은 죄에서 해방되고, 내재화된 억압을 인식하여 투쟁하며, 억압적인 구조를 생존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을 위해 변형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미 여성들의 완전한 삶을 위한 투쟁에 대한 뮤헤리스타 신학의 세가지 강조점은 신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을 결정한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남미 여성들이 살아온 경험을 신학의 자료로 삼고 있으며, 해방을 그 목표로 가지고 있다. 신학적 담론으로서, 뮤헤리스타 신학은 남미여성들에서 신학의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종교적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뛰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미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민족학적

¹ *Mujerista Theology* - 고유 명사로 남미 여성 해방신학을 지칭한다. *Mujerista* 는 스페인어로 “여성”을 의미한다. 미국의 남미 여성 신학자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미 민중 여성의 생각과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신학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남미 이민여성들의 자주적인 신학이다. Ada María Isasi-Díaz, *En La Lucha - In the Struggle: Elaborating a Mujerista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4), p. 214.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제공한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모든 신학의 주체성과 함께 모든 신학이 인간 담론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음(open-ended²)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뮤헤리스타 신학이 매우 중요하게 주장하는 남미여성들의 경험의 중심은 바로 로 꼬띠디아노 (*lo cotidiano*)³의 범주, 즉 우리들의 일상 생활, 공통되고 평범한 삶의 범위이다. 로 꼬띠디아노는 삶의 구체성(materiality, 유형)으로 스며 들어 가는데, 이 구체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초적 요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구체성을 끌어 안으신다. 로 꼬띠디아노는 남미 여성들이 투쟁하는 주요 활동 장소이다. 로 꼬띠디아노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상적인 장소, 시간,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남미여성들에게 현실(reality)을 알 수 있는 기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단순히 현실을 아는 것만 아니라 현실에

² 여성신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해석학적 방법론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 확정된 결론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³ *Lo cotidiano* - 스페인어로 “매일”, 또는 “매일 계속되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Mujerista Theology* 와 마찬가지로 번역되지 않으며, 남미 여성들이 매일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기회 -- 제공한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standing)”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은 남미 여성들의 경험을 그 자료로 삼고 있는 뮤헤리스타 신학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준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또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인식론적, 해석학적 특권을 강조하는 최근의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인다. 소외된 집단의 여성으로써,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인 미국문화 속에서 그와 비슷하게 형성된 가부장적인 문화 속의 여성으로써, 남미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진실로 구속되고, 의무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걸어 들어 오시는 억눌린 자들의 세계로 남미 여성들을 인도한다. 이것은 남미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구조로부터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 받는 급진적인 다른 형태의 미래 사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뮤헤리스타 신학이 발전시키는 신학의 주제는 남미여성들의 경험, 즉 “로 꼬띠디아노” 안에서 일어나는 해방적인 프락시스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주제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란 비유를 이해하고 재발견 시키는 것이다. 뮈헤리스타 신학은 왕국 (kingdom)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족 (kin-dom), 즉 하나님의 가족 (*la familia de Dios*)을 이야기한다. 21 세기에 왕국의 이미지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 게다가 “왕국”의 비유는 실제로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엘리트적인 생각을 정당화하고, 가부장제의 성격을 구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남미 여성들은 하나님의 친족,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과 훨씬 관계가 깊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통제와 지배가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하는 상호 관계가 존재하며,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뮈헤리스타 신학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이해된다 하더라도 -- 내세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가족 (*la familia de Dios*)은 이 세상에 속해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현재, 이 자리에서 부름 받았다. 이것은 남미 여성들의 존재와 투쟁과 연관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실제화 된다. 남미 여성들은 정의를 위해 투쟁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가족(*la familia de Dios*)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자신들의 구원을 달성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복음의 중심 요소인 정의와 평화를 이 세상에서 구체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뮈헤리스타 신학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이 추구하는 고유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뮈헤리스타 신학이 발전시켜온 두 번째 주제는 죄와 죄성(sinfulness)이다. 우리는 죄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남미여성들에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위해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믿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받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감이 인정 받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반대할 때나, 지연시킬 때, 능동적으로 돕지 않을 때, 죄를 짓는다. 남미여성들에게 죄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선함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라를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선입견이나, 개인적이고 관례적인 행동들을 말한다. 뮈헤리스타 신학이 말하는 죄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유지하는 행복과 특권을 강화시키는 반-해방(anti-liberation)을 의미한다.

뮈헤리스타 신학의 또 다른 주제는 정의이다. 정의는 받아들임의 과정,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화해, 연대, 기본적인 인간 능력 개발을 위한 재화의 획득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강조하는 과정이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관계확립과 관련되어 있다. 정의로운 관계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결정이

가능한 존재로,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로, 그리고 공헌할 권리가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존재로 보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확인한다. 정의로운 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성을 인정하고, 상호성과 책임감에 대한 필요를 인식함과 동시에 개인성을 확신하면서, 모든 인간의 권리가 발전하고, 번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뮈헤리스타 신학은 마태복음 25:31-46 에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된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나듯, 정의가 복음서의 본질적 요소라고 이해한다.

뮈헤리스타 신학이 발전시키는 네 번째 신학 주제는 기독교론이다. 윤리학에 기초하여, 모든 신학의 이해가 그러하듯,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기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미여성들은 기독교론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삶은 교회의 그리스도 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고 믿는 복음서의 예수와 더 연관 있다. 뮈헤리스타 신학의 기독교론은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닌 현재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각각의 기독교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 (*alter Christus*)라는 옛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1980 년대에 암살당한 엘 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푸에르토리고와 뉴욕의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인 마마 레오와 후안

루고, 캘리포니아의 농민 지도자들인 시저 차베즈와 돌로레스 후에르타 그리고 매일매일 해방을 위해 쉴 새 없이 투쟁하는 수많은 남미 사람들이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구원이 해방과 떨어져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구원은 부정의와 죄악, 완전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모든 행위로부터의 개인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 뮤헤리스타 신학에서의 구원은 대부분이 억압적인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그 구조들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미 여성들은 우리들의 행복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억압 받고 소외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뮤헤리스타 신학은 역사가 짧은 신학적 사업이며, 뮤헤리스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남미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힘을 실어 주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남미 여성들을 옹호하고, 교회와 학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헌신하고 있다. 종교는 살아있는 것이고, 모든 신학은 상황적인 신학 (contextualized theology) 이기 때문에, 뮤헤리스타 신학자들은 정의를 위한 투쟁(*la lucha* - 남미 여성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감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번역: 배근주)

Major Works of Professor Isasi-Díaz

God's Fierce Whimsy, co-author, The Mudflower Collective.
Pilgrim Press, 1985.

Hispanic Women: Prophetic Voice in the Church, co-authored with
Yolanda Tarango. Harper & Row, 1988; Fortress Press, 1993;
Scranton University Press, 2005.

Inheriting Our Mothers' Gardens, co-editor and contributor.
Westminster Press, 1988.

En La Lucha - A Hispanic Women's Liberation Theology, (Fortress
Press, 1993. 2nd edition 2003.

Women of God, Women of the People. Chalice Press, 1995.

Hispanic/Latino Theology - Challenge and Promise, co-editor and
contributor. Fortress Press, 1996.

Mujerista Theology: A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Orbis Books,
1996.

Camino a Emaús: Compartiendo el Ministerio de Jesús, co-editor
and contributor. Fortress Press, 2002.

La Lucha Continues – Mujerista Theology. Orbis Books, 2004.